"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한국 최초 수학문화관 건립 공청회
경남도교육청·서울노원구청 주최
수학 전문가 70여명이 참가
한국형 수학문화관 건립 지혜 모아

여·야 3당이 한국형 수학문화관 건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남교육청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교문위 위원장 국민의 당 유성엽의원(전북 정읍),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의원(노원구을), 새누리당 박완수의원(창원 의창구), 수학전문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서울특별시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과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육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제12차 국제수학교육자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만들어진 기반 위에 한국형 '수학문화관 건립'으로 수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학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수학문화관'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체험·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고 유익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통해 삶에 유익하고 유용한 미래지향적 선진 수학과 수학교육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수학 문화 공간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 초에 건립을 시작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학 선진화 내용이다.

수학문화관은 이류에 의해 생성된 수학 및 수학 관련문화를 수집·보존·해석·조사·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수학 관련 전시, 강의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한국 수학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대한수학회 회장 이용훈 교수(부산대 수학과)는 "국제수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 수학계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축적된 인프라 및 경험을 통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수학문화관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수학교육의 개척과 범국민적 수학문화 창달을 위한 수학문화관 설립의 청사진과 운영에 대해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과 노원구청 김성환 구청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하며 힘을 실었다.

수학문화관 건립으로 생활 속에서 항상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수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70여명의 수학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신나는 가을 체험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토요가족체험실' 운영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원장 우영혜)에서는 지역사회 유아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을 제공하기 위하여 10월 8일 '토요 가족 체험실'을 운영하였다.

토요 가족 체험실 운영은 도내 만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월 둘째주 토요일 운영되며 체험인원은 유아 및 동반보호자 240명이 함께 참여하여 월별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체험실은 1층 물체험실, 건축?블록체험실, 2층 아트체험실, 동화체험실, 바람?공체험실의 5개 실내체험실과 흥미로운 놀이기구로 구성된 실외체험활동을 통하여 평소 유치원 교육활동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번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안00(산청군)씨는 "가을 하늘 아래 실외체험 울타리 너머로 알록달록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겨주는것 같아 너무 기분 좋았구요. 실내체험실도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과학체험놀이 기구가 있어 아주 즐거운 토요일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해서 행복한 "아이 좋아!"

함안교육지원청, 우포 생태인문기행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돌숙)은 10월 9일 창녕 우포늪 및 남지 철교 일원에서 함안관내 다문화가족 8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의 자존감 고취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생태인문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생태체험을 통해 느끼는 감성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글쓰기와 책읽기 연계를 위한 독서진흥교육의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안교육지원청, 함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함께 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행사는 우포늪 조망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 알기,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기, 숲을 이루는 작은 풀잎과 곤충에게 이야기하기, 족배와 땟목 체험을 통해 모험심 기르기,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145호인 남지철교 위를 걸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 키우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순한 체험이나 관찰 학습이 아니라 관찰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 다문화 가족 간의 소통력, 학생의 표현 역량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를 보기도 했다.

생태인문기행 참가자 부모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소풍놀이 하는 기분이다. 스마트폰을 끄고 자연을 장난감 삼아 뛰어 노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짧은 하루 동안의 기행이지만 마음 가득히 자신의 소중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교육과 연계한 인문독서진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의 문화 이해하다

김해동광초, 세계문화이해축제

김해동광초등학교(교장 손승원)는 10일 '모두가 하나 되는 세계문화이해축제'를 실시했다.

동광초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글로벌문화제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대륙을 선정하여, 그 대륙 안에 있는 나라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은 한국 전통의 옷과 태극기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한국 전통 덕석몰이를 노래와 무용으로 표현하였으며 2학년은 아시아의 집과 음식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중국의 대중가요 '작은 사과'라는 곡에 맞춰 신나는 댄스를 선보였다.

3학년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국기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마오리족의 '마오리 막대놀이'와 가나의 '체체클레' 노래를 공연했다.

4학년은 유럽의 각국 국기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고려인들의 '고려각시춤'을 공연하였으며 5학년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대만 동요 '티오오'를 합창했다.

6학년은 세계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인사말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광(GD)합창단이 우리 전통가락에 맞추어 '아름다운 나라',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2곡을 노래하였다.

교과서와 연계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율포분교, 가을밤에 띄우는 음악편지 '바다소리 음악회'

지난 6일 깊어가는 가을밤, 거제시 율포해변에 자리잡은 동부초등학교율포분교장(교장 노순영) 앞뜰에서 학부모, 지역민과 함께하는 바다소리 음악회가 열렸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바다소리 음악회는 6년 전부터 전교생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 교육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로 어촌 마을과 학교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다.

이날 공연에는 학부모, 마을 어르신, 지역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악기소리와 공감하며 공연을 축하했고, 색소폰 연주와 노래로 구성한 58밴드의 특별공연은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또한 병설유치원 원아들도 노래와 율동을 선보여 웃음과 활기를 더해주었다.

작년에 첫 걸음을 뗀 흥겨운 풍물로 첫 무대를 연 아이들은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22명의 전교생이 함께 준비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고 많은 갈채를 받았다. 산중호걸, 할아버지 시계, 고양이 춤 등 30여 곡의 바이올린 선율이 이어지는 동안 엉뚱한 곡이 연주되거나 음을 놓치는 실수의 순간에도 아이들은 연주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화답해준 관객들의 큰 박수는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불러주는 노랫말이 되었다. 출연자 모두가 합창, 합주로 준비한 마지막 곡 '아리랑'은 앵콜까지 받으며 공연을 뜨겁게 마무리했다.

6학년 김연정 학생은 공연 전 "1학년 때 바이올린은 너무 어려운 악기였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려주고 싶어 가슴이 설렌다.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연주하고 싶다"며 초등 시절 마지막 연주회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을 표현했다.

노순영 교장은 "어장과 배 파손 등 태풍 차바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바다소리 가득 담은 아이들의 연주회를 통해 웃음과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학교와 마을이 화합하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도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교육지원청 권역별 돌봄협의회 운영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은 창원관내 모든 초등학교 108개교와 인근 지역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아카데미 등)과 권역별 돌봄협의회 운영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행복 공감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하여 교육과정 설명회 및 보고회 시 인근 돌봄기관 안내, 연계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필요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명량운동회, 특색 프로그램 등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돌봄기관과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의 소통·화합의 장으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